

Abstract

The Restoration of Church's Ethic through the Renewal of Christian Life Story

By Kim, Bueng-Guan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uggest that the renewal of Christian life story is important for the restoration of Korean church's ethic. This essay consists of five sections. The first section explains that the Bible and the manifestoes of western evangelical churches place great importance on believers' lives and their stories. The second section mentions about the anxiety and blames poured on the ethical corruptions of Korean churches, which result from an inclination to make light of the lifestyle out of the gospel. The third and fourth section deal with the importance of the Christian life story in the study of ethics from the perspective of Narrative ethics. The last section presents three practical proposals for the renewal of Christian life story in Korean churches.

***Key words**

기독교 윤리, Narrative ethics, 복음적 삶, 명시적 윤리, 실질적 윤리.

이 논문은, 한국 교회가 윤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나뉘지는 '삶의 이야기'가 복음 지향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쓴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성경과 서구 복음주의 계열의 신앙 선언문에서 ‘복음적 삶’이 중요하게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둘째로 한국 교회는 ‘복음 이야기’ 중에서 ‘복음적 삶’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성장하였다는 점을 언급할 것이다. 글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에서는 ‘삶의 이야기’가 윤리학 논의에서 갖는 의미를 진술할 것이다. 특히 네 번째 부분에서는 Narrative 윤리학에서 주장하는 이론을 소개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침의 단서를 확보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삶의 이야기’를 복음화 하는데 시급하게 요청되는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I. '복음 이야기'와 삶의 중요성

성경은 '삶의 이야기'로 충만하다.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와 삶을 위한 교훈이 주류를 이루고, 신약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 및 그들에게 복음적 삶을 가르치는 교훈을 많이 담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삶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신약에서 삶을 어떻게 중요하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본 후, 1970~1980년대 서구 복음주의 계열에서 나온 선언서에서 삶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언급함으로써, 복음과 삶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1. 신약 성경과 삶의 중요성

예수에 대한 복음서 증언들을 보면, 당대 사회 속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예수¹⁾의 삶—가르침, 행동, 됴됨이—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의 성육신 사건, 예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자기 선언,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과의 친교,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등이 그 당대 사람들과 유대 사회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 삶의 이야기를 빼놓고, 예수의 진리를 말할 수 없다. 예수는 공허한 진리, 공허한 사랑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의 성육신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하나님이 사신 삶의 이야기의 시작이다. 그 삶이 유대라는 구체적 사회 속에서 영위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 내용은 예수 삶의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성육신 안에서 영적

인 것이 사회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도날드 크레이빌의 선언은 정확한 것이다.¹⁾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도 많이 담고 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영위해 나가야 할 삶을 위한 예수님의 교훈도 적잖이 실려 있다. 이런 모습은 바울 서신에도 나타난다.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의 이야기,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위한 바울의 교훈 등이 실려 있다.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바울 서신에서는 신자의 삶과 관련된 교훈이 은혜나 믿음교리에 대한 논증적 설명보다 양적으로 더 많이 들어 있다.²⁾ 이 도표는 바울 서신 전체에서 복음교리에 대한 교훈과 복음적 삶에 대한 교훈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것에 기초하였다. ‘개략적’이라고 함은 서신서의 내용을 덩어리로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즉 ‘복음교리에 대한 교훈’을 다루는 서신서 덩어리 안에 복음적 삶에 대한 교훈이 한 두 구절 들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그 역도 마찬가지다—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도표를 작성하였다.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후서는 ‘복음교리에 대한 교훈’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복음적 삶을 위한 교훈’으

1) Donald B. Kraybill, *The Upside-down Kingdom*, 2d ed. (Scottsdale, Pennsylvania: Herald Press, 1990), 29.

2) 이 도표는 바울 서신 전체에서 복음교리에 대한 교훈과 복음적 삶에 대한 교훈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것에 기초하였다. ‘개략적’이라고 함은 서신서의 내용을 덩어리로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즉 ‘복음교리에 대한 교훈’을 다루는 서신서 덩어리 안에 복음적 삶에 대한 교훈이 한 두 구절 들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그 역도 마찬가지다—그런 부분은 무시하고 도표를 작성하였다.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빼면, 복음교리에 대한 교훈보다 복음적 삶을 위한 교훈이 양적으로 더 많이 나온다.

신약성경이 위와 같이 삶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초대 교회도 신자들에게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예수의 산상수훈이 초대 교회에서 중요시된 것은 그 증거 중 하나다. 산상수훈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수의 직접적 교훈 중에는 가장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4세기 니케아 종교회의 전까지 이 산상수훈은 교회에 찾아온 초신자들에게 복음적 삶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되었던 성경구절이다. 당시 교회 문헌에 인용된 성경구절 중 산상수훈보다 많이 인용된 것은 없었다.³⁾

〈바울 서신서에 나타난 복음적 삶을 위한 교훈〉

책명	복음교리에 대한 교훈	복음적 삶을 위한 교훈	기타(인사)
로마서	1:8~11:36	12:1~15:13	1:1~17, 15:14~16:27
고린도전서	(은혜의 복음을 전제함)	1:10~16:9	1:1~9, 16:10~24
고린도후서	(은혜의 복음을 전제함)	1:3~13:10	1:1~2, 13:11~14
갈라디아서	1:6~5:12	5:13~6:10	1:1~5, 6:11~18
에베소서	1:3~3:21	4:1~6:20	1:1~2, 6:21~24
빌립보서	(은혜의 복음을 전제함)	1:3~4:20	1:1~2, 4:21~23
골로새서	1:9~2:23	3:1~4:6	1:1~8, 4:7~18
데살로니가전서	(은혜의 복음을 전제함)	1:2~5:24	1:1 5, 25~28
데살로니가후서	(은혜의 복음을 전제함)	1:3~3:15	1:1~2, 3:16~18
디모데전서	(은혜의 복음을 전제함)	1:3~6:9	1:1~2, 6:20~21
디모데후서	(은혜의 복음을 전제함)	1:3~4:8	1:1~2, 4:9~22
디도서	3:4~7	1:5~3:3, 8~11	1:1~4, 3:12~15

3) Glen H. Stassen, *Just Peacemaking: Transforming Initiatives for Justice and Peace*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37.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복음적 삶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에 기인한 교훈이다. 즉 규범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먼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규범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의 사건을 먼저 상기시키신 것과 같은 이치다(출 20:2). 예수님이 주신 삶에 대한 규범적 교훈은 기본적으로 은혜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기인한다. 바울이 제시한 삶에 대한 규범적 교훈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사건에 기인한다.⁴⁾ 예를 들면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규범을 끌어낸다(고전 12:13; 갈 3:28).

2. 1970~1980년대 서구 복음주의 계열 교회에서 강조된 복음적 삶

1970~1980년대는 한국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가 ‘급성장’을 하던 때이다. 이때 서구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에서 선포된 선언서를 보면, 복음적 삶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언서들 중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1973년 11월, 50명이 넘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시카고에 있는 YMCA 빌딩에서 모여 이른바 ‘시카고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 내

4) 존 하워드 요더(John H. Yoder)는 「그리스도 몸의 정치학」에서 이 점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예수님의 용서 사건,’ ‘떡을 떼,’ ‘침례,’ ‘그리스도의 충만,’ 등에서 어떻게 삶의 규범들이 유래되는지를 설명해준다. John H. Yoder, *Body Politics: five practices of the Christian community before the watching world*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1989).

5) 아래에 부분적으로 언급된 ‘선언서’의 내용은 다음의 책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이다: Robert Webber, 「기독교 사회운동」, 박승룡 역(서울: 라브리, 1990), 185~237.

용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과 다짐들이 들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과 이 세상에 처하도록 하신 상황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여 왔다.” “하나님과 십역의 굶주리는 우리의 이웃 앞에서 현재 우리의 생활수준과 관련된 가치관들을 재고하고 세계자원의 보다 더 공정한 획득과 분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74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복음화 국제대회가 열린 후 로잔언약이 발표되었다. 이 언약에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한 섹션으로 정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인간 사회 어디에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권념에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는 복음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 모두를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변화시키는 것 이어야 한다.”

1980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영국의 핫스돈에서 검소한 생활방식을 위한 복음주의 국제 협의회가 열린 후 ‘서약서’를 발표하였다. 그 서약서는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 희생자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공범자임을 깊이 뉘우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9가지 항목에서 생활원칙을 천명한 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자유롭게 된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진심어린 관심을 가짐으로, 복음전도와 경제개발과 정의에도 관심을 가짐으로, 그리고 심판의 날을 엄숙히 기대함으로,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정의롭고 검소한 생활방식을

영위”할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 마무리짓는다.

이렇게 서구 복음주의 계열에서 선포된 복음적 삶에의 서약과 선언들이 동일한 시대 한국 복음주의 교회에는 제대로 수입이 되지 않았다. 반면, 그들이 ‘복음적 삶’과 더불어 중요시 여겼던 믿음과 은혜, 구원 등을 강조하는 ‘영적 진리’는 쉽게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강조되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취하고 다른 하나는 놓친 격이 된 것이다.

II. 한국 교회 현실과 간과된 복음적 삶

신약성경과 초대교회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서구 복음주의 계열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복음적 삶’을, 1970년대 이후 ‘급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복음주의 계열 교회는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국교회는 윤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 내?외적으로 ‘염려의 대상’이 되었다.

1. 매스컴에 비친,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애정을 갖고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목소리는 그 동안 늘 있어왔다. 이러한 염려의 목소리는, 한편으로 한국교회의 긍정적 측면을 경시하고 부정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염려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중 매체에서 다루어졌던,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교회의 신앙행습과 관련된 염려가 많았던 반면, 현재는 교회 윤리와 관련된 염려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거에는 교회 내부에서의 비판이 주조를 이룬 반면, 현재는 교회 외부에서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1970년 대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책의 내용에는, 한국 교회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직접적 염려는 들어 있지 않다. 교회의 풍토와 신앙의 행습 문제,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관계 문제 등에 대한 염려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염려는, 더 높은 수준 또는 더 온전한 수준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 지향적’ 염려라고 할 수 있다.⁶⁾

80년대와 90년대 초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모두 4권으로 발행된 「韓國教會의 虛와 實」이라는 책에서는, 70년대 염려의 내용이었던 교회의 풍토, 신앙의 행습, 교회와 사회의 관계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교회의 윤리성 문제에 대한 염려도 담겨 있다: “한국 교회의 도덕성: 기독교인의 모습 잃고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 “개신교 윤리에 먹칠하는 교회의 과소비 풍조: 무작정 쓰

6) 한완상 편,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이 책에서 다룬 주제들을 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 교회는 무당종교를 극복할 수 있는가?” “왜, 부흥회가 이토록 번지는가?” “왜, 한국 교회에서는 여신도회가 비대해지나?” “한국 교회는 예수 탄생의 참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왜, 한국 교회 젊은이는 기백이 없는가?” “한국 교회 예배, 이대로 좋은가?” “한국 교회 찬송가, 이대로 좋은가?” “새벽?기도?헌금?심방, 이대로 좋은가?” “보수신앙과 진보신앙, 그 화해의 길은 없는가?” “사회구원과 개인구원, 그 화해의 길은 없는가?” “기독교와 민족주의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산업선교와 복음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 “불균형 시대의 선교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적 매카시즘은 과연 선교적인가?” “기독교청년·학생운동, 어디까지 왔나?” “3·1 운동 회갑을 맞은 한국 교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고 보자,” “교권 장악 위한 파벌 싸움: 파쟁으로 얼룩진 교회사,”(이상 1권) “교회당 매매 행위: ‘샅꾼 목사’의 장삿속이 빚어낸 엄연한 ‘현실,’ “윤리적 타락현상(상): 성서가 가르치는 최고선 있으나 마나,” “윤리적 타락현상(하): 사회의 부패에 편승, 갈 길 못 찾고 방향,”(이상 2권) “목회자의 재산 윤리(1): 욕심 앞세우며 개신교 윤리에 먹칠”(3권).⁷⁾ 1988년 9월 23일에 발생한 장모 목사의 권총 살인 사건, 1992년 2월 27일에 발생한 이모 목사의 여신도 인신매매 사건 등이 매스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한국 교회의 “윤리부재 현상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⁸⁾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교회의 부정적 모습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매우 쉽게 그리고 매우 거칠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온라인 상에서 반기독교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더니, 급기야는 오프라인에서 만나 반기독교 시위를 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⁹⁾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이유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가 제시된다. 첫째는 한국 교회의 윤리적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답이고, 둘째는 교회가 윤리적으로 더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쌍방향 매스미디어 역할을 하는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교회의 윤리적 문제들이 세상에 쉽게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답이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취하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의 입지가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7) 기독교신문 취재팀 편, 「한국교회의 허와 실」(Ⅰ) (서울: 쿰란출판사, 1992). 같은 출판사에서 1993년에 Ⅱ 권과 Ⅲ 권이 나왔고, Ⅳ 권은 1994년에 나왔다.

8) 기독교신문 취재팀 편, 「韓國教會의 虛와 實(Ⅱ)」, 96~97.

9) “안티 개신교” 온라인서 확산,” 「한겨레」, 2003년 10월 23일, [온라인 자료];

<http://www.hani.co.kr/section-009100020/2003/10/009100020200310231857049.html>.

2. 한국 교회가 간과한 ‘복음적 삶’

교회문제와 관련하여 건국 후부터 1999년 2월까지 사회법정이 판결을 내린 사례를 보면, 돈 문제와 관련된 사례가 「기독교 판례집」에 수집된 166건 중 75건에 이른다.¹⁰⁾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처리된 내용에는 ‘횡령,’ ‘절도,’ ‘배임죄,’ ‘폭력,’ ‘사기,’ ‘업무상 횡령’ 등 사회적으로 파렴치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들도 적잖이 담겨있다.¹¹⁾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 절에서 언급했던 마스크에 비친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단순히 마스크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윤리적 문제로 상처를 입고 한국 사회로부터 염려와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 중 핵심은 한국 교회가 ‘복음 이야기’에서 복음적 삶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데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서구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이 선포했던 선언서들의 내용 중 복음적 삶에 대한 이야기는 간과하고 ‘영적 진리’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한국교회는 ‘급성장’을 했다.

1970년 초에 시작되어 19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에 이르기까지, 한국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는 이른바 ‘여의도 집회’라는 대형 집회를 통해 교회 성장의 폭발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집회들을 통해, 구원의 확신, 오직 믿음, 그리고 전도에 대한 강조 등이 일반 신도들에게 자

10) 기독교 경영연구원 편저, 「기독교판례집」(서울: 육법사, 1999). 이 수치는 이 책에서 다룬 판례들을, 나의 관심에 따라 ‘돈과 관련된 사건,’ ‘예배당 건축과 관련된 사건,’ ‘신자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건,’ ‘교회 의석 결정과 관련된 사건,’ ‘교회의 징계와 관련된 사건,’ ‘기타 사건’으로 나누어 쟁한 것에 의존한다.

11) Ibid., 721~789.

연스럽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사회 속에 거하는 신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는 별로 상관없이 전파되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군사독재정권’ 아래 있었다. 한국 사회의 성숙도도 지금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제는 지금보다 컸으면 컸지 결코 작지는 않았다. 이런 사회 속에 거하는 신자의 삶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윤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배는 주로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어 ‘생활 전체가 예배’로 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였다.¹²⁾ 설교도 은혜, 믿음, ‘복음’에 대한 강조는 반복되었지만, 삶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간증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국 사회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보다는 ‘기적적인 체험’에 초점을 맞추어지기가 일쑤였다.¹³⁾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경공부도 “생활과 괴리된 영적 교육”에 치중되었다.¹⁴⁾

Ⅲ. ‘삶의 이야기’가 윤리에서 갖는 의미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 이야기’에서 ‘복음적 삶’을 간과한 것이 한국 교회의 윤리적 실패와 관계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신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복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리’에 대한 어원적 고찰을 해보면 나의 이 주

12) 한완상 편,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133~35.

13) 기독교신문 취재팀, 「韓國教會의 虛와 實 (Ⅱ)」, 218~25.

14) 기독교신문 취재팀, 「韓國教會의 虛와 實 (Ⅳ)」, 33.

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적 삶 또는 ‘삶의 이야기’에서 형성되는 ‘윤리’

인간은 자연에 적응하여 살면서 사회를 형성한다. 사회를 형성하면서 사는 인간은 자신이 사는 사회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일정한 생활 습속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 생활 습속은 사회 구성원에게 규범적 역할을 한다. 즉 어떤 사회에 태어난 인간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형성된 사회생활 습속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규제 받게 된다. 윤리는 이렇게 형성된 ‘사회생활 습속’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한자에서 ‘윤리’의 ‘윤(倫)’자는 사람 ‘인(人)자’와 덩어리 ‘륜(倫)자’의 합성어로서 ‘사람 덩어리’ ‘무리’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理)’자에는 이치·이법(理法) 또는 도리 등의 뜻을 담고 있다. 말하자면 윤리(倫理)는 사회를 이루어 모여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적용되는 이치·이법(理法) 또는 도리라고 정의될 수 있다. 윤리에 대한 이러한 의미는 서양어에도 담겨 있다. 영어에서 ‘윤리’를 의미하는 ‘Ethics’는 헬라어 ‘에토스’에서 유래된 것이다. ‘에토스’는 “자연환경의 특성에 순응하고 각기 그 집단과 더불어 생활하여 온 인간이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간 방식과 습속”을 의미한다.¹⁵⁾

결국 어원적으로 볼 때 ‘윤리’는 ‘사회생활 습속’ 즉 ‘사회적 인간 삶의 풍토’에서 생겨난 것이다.¹⁶⁾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명제를 받아

15) ‘윤리,’ 「두산 백과 사전」.

16) ‘윤리’와 혼용하여 사용되는 ‘도덕’이라는 말에도 ‘사회적 습속’의 의미가 들어 있다. 영어에서 ‘도덕’을 의미하는 ‘moral’은 라틴어 ‘모레스’에서 유래된 것인

들인다면,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듯이, 인간은 ‘사회적 생활 습속’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사회적 생활 습속’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들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인간은 ‘윤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가 상실된 인간’이라는 표현은 ‘물’자가 빠진 ‘물고기’라는 표현처럼 어색한 것이다.

윤리에 대한 이러한 어원적 이해에서 우리는 선(善)이나 의(義) 같은 윤리적 규범이 인간의 삶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선재하는 ‘선’이나 ‘의’에 맞추어 살기 위해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결과로 ‘선’이나 ‘의’ 같은 것이 형성된 것이다. 인간 삶의 결과는 ‘삶의 이야기’를 통해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후세대에게 전승된다. 그리고 전달, 전승되는 과정에서 ‘윤리’는 새롭게 형성되기도 한다. 결국, 윤리는 사회적 삶 또는 ‘삶의 이야기’를 토양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다. 성경은 ‘선재하는’ 의나 선을 제시하지도 않거니와, 그것들을 따라 살라고 권하지도 않는다. 타락기사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의’나 ‘선’을 아는 것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금하신다.¹⁷⁾ 그 대신 성경은 하나님을 제시한다. 인간은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따르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지, 의나 선을 따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의나 선보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의’와 ‘선’

데, 이 ‘모레스’는 헬라어의 ‘에토스’와 같이 ‘사회의 습속 또는 관습’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도덕’은 “일정한 사회 내에서 그 사회 구성원의 사회에 대한, 그리고 구성원 상호 간에서의 행위를 규제하는,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규범의 총체”이다. ‘도덕,’ 「철학사전」, 이삭, 1983.

17) Dietrich Bonhoeffer, 「기독교윤리」,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16~17.

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의’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순종이 제사(종교사회에서의 의)보다 중요하다는 말도 이와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이야기가 기독교 윤리의 기본 토양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2. ‘삶의 이야기’ 상실에서 오는 윤리 분열 현상

어원적으로 볼 때, 인간은 ‘윤리’를 벗어나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리가 없는 인간,’ ‘윤리가 상실된 사회’라는 표현을 자주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윤리’라는 말을 ‘명시적(明示的) 윤리’와 ‘실질적(實質的) 윤리’로 나누어 내용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명시적 윤리’란 언어로 분명하게 표현된 윤리를 의미하고, ‘실질적 윤리’란 생활 속에서 통용되는 윤리를 의미한다.

명시적 윤리는 언어로 추상화되었기 때문에 전달하거나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에 적합하다. 반면에 실질적 윤리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나타나는(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서 사회를 일구어 가는 데 적합하다. 발생적 측면에서 보자면, 사물 또는 현상이 있고 거기에 맞는 언어가 생기듯이, 실질적 윤리가 있고 그것에 부합하는 명시적 윤리가 나온다. 말하자면, 실질적 윤리가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것이 명시적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 윤리가 상실되었다.”라는 말은 그 사회에서 명시적 윤리와 실질적 윤리 사이에 괴리가 깊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즉 언어를 통해

18) 이와 관련해서 위의 각주 4)에서 언급된 본문 내용과 주 내용을 참조하라.

전파되고 가르쳐진 명시적 윤리 수준에 실질적 윤리가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을 윤리가 상실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회의 윤리성을 판단할 때, 명시적 윤리와 실질적 윤리 사이에 도치 현상이 나타난다. 즉 발생적 측면에서 보자면, 실질적 윤리에 걸맞지 않는 명시적 윤리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윤리를 기준으로 삼아 실질적 윤리(의 타락)를 문제삼는다는 것이다. 왜 이런 도치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윤리가 명시적 윤리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질적 윤리가 명시적 윤리로 전환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글렌 스태슨(Glen Stassen)과 데이빗 갯쉬(David Gushee)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스타센과 갯쉬는 도덕적 규범을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이해한다. 즉 ‘특정 상황에서 행해지는 즉각적 판단,’ ‘도덕적 법,’ ‘도덕적 원리,’ ‘세계관이나 신앙적 확신’이 그것이다.¹⁹⁾ 이 네 가지 단계들은 윤리적 추론 과정에서 중첩적으로 작용하지만, 어느 단계에 더 강조점을 두면서 윤리적 추론을 하느냐에 따라 기독교 윤리학의 특정 형태가 정해진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즉 상황에서 주어지는 즉각적 판단에 초점을 둘 경우 ‘상황윤리’가 되고, 도덕적 규범에 초점을 둘 경우에는 ‘율법주의 윤리학’이 되며, 도덕적 원리에 중점을 둘 경우에는 ‘원리주의 윤리학’이 되며, 세계관이나 신앙적 확신에 중점을 둘 경우에는 ‘내러티브 윤리학’이나 ‘공동체 중심 정황 윤리학’이 된다고 본다. 이 네

19) Glen H. Stassen and David P. Gushee, Kingdom Ethics : Following Jesus in Contemporary Context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03), 99~107.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세계관이나 신앙적 기본 확신' 이고, 그것에서 '도덕적 원리' 가 파생되며, 도덕적 원리에 기초하여 '도덕적 법규' 가 나오며, 도덕적 법규와 상황이 만나서 '특정 상황에서 행해지는 즉각적 판단' 이 이루어진다고 본다.²⁰⁾ 따라서 도덕적 규범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세계관 또는 신앙적 기본 확신' 이다.

스태슨과 것쉬의 이러한 설명을 '명시적 윤리' 와 '실질적 윤리' 의 관계에 적용해볼 수 있다. 그들의 설명에서 명시적 윤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덕적 원칙' 과 '도덕적 법규' 다. 그리고 '실질적 윤리' 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계관이나 신앙적 확신'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행해지는 도덕적 판단(행위)' 이다.

이러한 적용은 윤리에 대한 어원적 이해와도 상통한다. 즉 앞에서 우리는 윤리란 에토스 즉 “자연환경의 특성에 순응하고 각기 그 집단과 더불어 생활하여 온 인간이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간 방식과 습속”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명시적 윤리는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 윤리만 존재한다. 즉 인간 내면의 세계관이나 신앙적 확신이 특정상황(자연환경)과 관계되면서 삶의 방식과 습속을 만들어 낸 것이고, 그것 자체가 구성원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그들 '삶의 이야기' 와 실질적 윤리 사이에는 아무런 괴리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윤리는, 그것이 후세대에게 전달되고 교육되기 위하여, 추상화되고 언어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면서 삶의

20) Glen H. Stassen and David P. Gushee, Kingdom Ethics : Following Jesus in Contemporary Context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03), 107~204.

방식과 습속이 명시적 윤리인 ‘도덕적 원리’ 나 ‘도덕적 법규’로 전환된다. 이렇게 형성된 도덕적 원리나 법규가 이제는 역으로 그 사회의 생활 방식과 습속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명시적 윤리란 실질적 윤리가 추상화됨으로써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추상화 과정에서 그들의 풍요로운 ‘삶의 이야기’가 제거된다. 그리고 윤리의 추상화는 그 자체의 독자적 체계로서 자기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 그 추상화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결과로 실질적 윤리가 내포하고 있던 풍요로움과 구체성도 서서히 제거되고 명시적 윤리와 실질적 윤리 사이의 괴리가 깊어지기 시작한다.

IV. ‘삶의 이야기’와 Narrative 윤리학

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삶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우리의 주장은 Narrative 윤리학이 주장하는 바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Narrative 윤리학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를 좀더 풍요롭게 해주고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단초를 제공해 준다.

1. Narrative의 정의

Narrative는 ‘Storytelling’ 즉 ‘이야기 나누기’이다. 여기서 ‘이야기’는 ‘나누기’의 내용이 되고, ‘나누기’는 대화자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전제한다. ‘이야기’는 전개의 방향성이나 지향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야기 나누기’란 사건 전개의 방향성이나 지향성이 있는 이야기를 나

냄으로써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해나갈 뿐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가 내용과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등장인물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이야기의 사회적 배경이 들어있어야 하며, 셋째는 발생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이야기 안에서 상관성을 갖지만 서로 구별되는 요소들이다.²¹⁾ 이야기의 이 세 가지 형성요소는 ‘나누기’가 형성되기 위한 기본 요소이기도 하다. 즉 나누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이야기를 주고받는 인물이 있어야 하고, 둘째 주고받는 사회적 배경이 있으며, 셋째 그 이야기의 내용이 공통의 관심사가 될 만한 ‘사건’이 있어야 한다.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이야기 나누기’가 있어왔다.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가 “물고기가 물 안에 있듯이 우리는 역사 안에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의미한다.²²⁾ 말하자면 ‘이야기 나누기’는 인간의 존재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2. Narrative가 갖는 윤리적 잠재력

리처드 니버, 존 요더(John H. Yoder), 제임스 맥클랜든(James Wm. McClendon, Jr.), 스텐리 하우어와스(Stanley Hauerwas) 등은 Narrative가 갖는 윤리적 잠재력을 특별히 중요시 여긴 학자들이다. 이

21) James Wm. McClendon, Jr., *Systematic Theology: Ethic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6), 330.

22) Richard Niebuhr, *The Meaning of Revela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41), 36, 72. 니버가 역사를 말하면서 중요시여기는 것은,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는 일련의 사건으로서의 역사 즉 ‘외면적 역사’가 아니라, 그 사건들이 해석되어 우리 내부 속에 안착된 ‘내면적 역사’이다. 이 내면적 역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이야기’가 된다. Ibid., 59~66.

들은 Narrative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한다. 요더가 성경을 “(믿음) 공동체 기원의 역사적 기저(基底)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을 때, 이 정의 속에는 성경이 갖는 ‘이야기’ 적 속성을 담고 있다.²³⁾

그리고 그 증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직접적인 현실적합성을 가질 뿐 아니라, ‘규범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요더는 부각시킨다. 맥클렌든은 “참된 기독교 윤리학은 내러티브 윤리학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그의 ‘윤리학’ 책 중 한 장(Chapter)을 할애한다.²⁴⁾ 하우어와스 역시 윤리학에서 Narrative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루시는 것에 대한 Narrative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시작되며, 기독교 윤리학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이야기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²⁵⁾

이처럼 다양한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Narrative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Narrative가 갖는 윤리적 잠재력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어떤 잠재력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핵심적 잠재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치를 보인다. 예를 들면, 구스타프슨(James M. Gustafson)은 Narrative 윤리학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 학자이지만, “Narrative는 기독교 공동체의 종교적 도덕적 정체성을 유지·확증시켜주며, 예수 그

23) John Yoder, *The Priestly Kingdom: Social Ethics as Gospel*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69. 요더는 성경을 ‘정경적 이야기,’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라고도 표현한다. Ibid., 9. 요더의 성경관을 위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라: John H. Yoder, “The Use of the Bible in Theology,” *The Use of the Bible in Theology: Evangelical Options*, ed. K. Johnst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3), 103~120.

24) McClendon, *Systematic Theology: Ethics*, 328~56.

25)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24~25.

리스도에 대한 그 구성원의 충성을 유발하고 지속시켜” 주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²⁶⁾ 구스타프슨의 이러한 점은 제임스 하이드(James Hyde)와 글렌 스태슨(Glen Harold Stassen)에 의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즉 그들은 다른 사람과 입장의 동일함 갖기, 일체감 형성,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노출시키기, 영적 정체성 형성, 변혁과 치료하기, 영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등이 Narrative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이다.²⁷⁾

3. Narrative와 교회의 윤리성 문제

위에서 우리는 Narrative를 ‘이야기 나누기’로 정의하였고, 그것이 갖는 윤리적 잠재력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윤리적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야기 나누기가 그 공동체의 윤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즉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나누기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공동체의 윤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퇴폐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6) James M. Gustafson, “Varieties of Moral Discourse: Prophetic, Narrative, Ethical, and Policy,” Calvin College, The Stob Lectures, 1988, 19~20. 간접 인용, Stanley Hauerwas and L. Gregory Jones, Why Narrative?: Readings in Narrative Theolog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9), 3.

27) James Hyde and Glen Stassen, “Story and Spirituality,” Becoming Christian: Dimensions of Spiritual Formation, ed. Bill J. Leonard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0), 73~89.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Narrative 윤리학자들은 그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큰 이야기’의 궁극적 모델은 ‘성경의 구원 이야기’이며, 그 구원 이야기는 ‘그리스도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²⁸⁾ 즉 한 개인의 이야기는 믿음 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야 하고, 믿음 공동체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나 또는 우리’의 이야기가 갖기 쉬운 자기 기만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극복할 수 있고, 공동체의 삶을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를 넘어서는 지구 저편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V. 교회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유형의 윤리적 갈등

교회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는, ‘삶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것과 긴밀하게 관계된다. 즉 교인들 사이에서 나뉘지는 ‘삶의 이야기’가 Narrative 윤리학이 지적한 대로 ‘더 큰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에 접목되어 전개되지 않음으로써, 교회의 실질적 윤리가 세상의 실질적 윤리를 답습하게 되는 데서 교회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을 이해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명시적 윤리의 다름에서 오는 갈등이고, 둘째는 명시적 윤리와 실질

28) James Hyde and Glen Stassen, “Story and Spirituality,” *Becoming Christian: Dimensions of Spiritual Formation*, ed. Bill J. Leonard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0), 89.

29) McClendon, *Ethics: Systematic Theology*, 356.

적 윤리 사이의 다름에서 오는 갈등이다.

1. 명시적 윤리의 다름에서 오는 갈등

앞에서 언급한 대로 명시적 윤리는 실질적 윤리가 언어화되어(추상화되어) 존재하는 윤리이기 때문에, 명시적 윤리의 다름에서 오는 갈등은 대체로 언어화된 ‘규범’이나 ‘도덕법’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예를 들자면 신학자나 목회자—사이에서 발생한다. 그 윤리적 갈등의 내용은 특별한 주제와 관련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남편의 폭행 때문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고 있는 여신도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상담해온 경우, A 목사는 ‘명시적으로’ 그것을 허락했고, B 목사는 ‘명시적으로’ 금하였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두 목사는 이혼문제와 관련한 ‘명시적 윤리’에서 분명한 괴리를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A 목사의 결정이든 B 목사의 결정이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 않는다.³⁰⁾ 그리고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이 경우는 매우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다른 많은 경우에는 A 목사도 이혼을 반대할 것이다.

조셉 플레처(Joseph Fletcher)가 그의 「상황윤리」에서 ‘율법주의’ 윤

30) 이 문제를 신자들이 가볍게 대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어느 것이 부합한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경적 답을 가져야 한다. 논문의 이 장에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명시적 윤리의 다름에서 오는 갈등 해결에 윤리적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경우, 좀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실질적 윤리와 명시적 윤리 사이의 갈등 문제를 간과하게 될 뿐 아니라, 윤리적 논의를 공허하게 만들어 실질적 윤리를 바로 잡는 일을 방지하기 쉽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리학을 반대하고 상황윤리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사례로 든 윤리적 문제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경우들이다. 정신병원에서 강간당해 임신한 처녀의 낙태 허락 문제, 적군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여성 첩보원이 간음을 해야 하는 문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독일군 보초의 아기를 임신한 주부의 경우 등은 일상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³¹⁾ 조셉 플레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명 존중’ ‘성적 순결’ 등의 도덕적 법규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그는 새로운 도덕적 법규로 ‘사랑’을 제시한다. 그는 “사랑만이 유일한 규범”이라고 주장한다.³²⁾

플레처의 이러한 시도를 이 논문의 용어로 평가하자면, ‘명시적 윤리’에 대한 새로운 ‘명시적 윤리’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즉 ‘생명 존중’ ‘성적 순결’이라는 명시적 윤리는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사랑’이라는 명시적 윤리는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그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윤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에는 명시적 윤리가 실질적 윤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상황 윤리와 규범 윤리 사이에 논쟁이 진지하게 많이 전개되었지만, 그 진지함은 학자들 사이에 국한되었을 뿐 교회의 실질적 윤리를 향상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 쟁점에 대한 서로 다른 명시적 윤리 사이의 진위 논쟁은 그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실질적 윤리를 변화시키는 데

31) Joseph Fletch, 「상황윤리」, 이희숙 역(서울: 종로서적, 1989), 22~24, 148~53.

32) Ibid., 53~69.

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³³⁾

2. 명시적 윤리와 실질적 윤리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

명시적 윤리와 실질적 윤리 사이의 괴리는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명시적 윤리는 어느 정도 이상 지향적 성향을 갖는다면 실질적 윤리는 다소 현실 지향적 성향을 갖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성향이 서로에게 상생 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괴리라면, 명시적 윤리와 실질적 윤리 사이의 괴리는 긍정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그 괴리는 교인들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윤리적으로 이중적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의 명시적 윤리는 설교 때나 성경공부 시간 등 교회에서 행해지는 공식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포되고 교육된다. 이때 교육되는 윤리의 내용은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대동소

33)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현대 도덕 교육 방법 논쟁과 궤를 같이 한다. 이영주는 현대 도덕 교육 방법 논쟁을, 법칙과 원리를 강조하는 입장과 미덕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구분한 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칙을 강조하는 입장은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의 제 규칙을 아동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도덕 교육의 요체”라고 보는 것이다. 원리를 강조하는 입장은, 법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편적 원리에 따르는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입장을 더한 방법이다. 미덕과 공동체 중심적 입장은 “도덕 교육이 하나의 원리나 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따라 융통성 있고 특수 상황에 적합한 도덕적 판단을 습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가는 방법이다. 법칙과 원리를 강조하는 입장은 그 교육 방법에 있어서 개인의 이성과 인지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근대 자유주의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면서 형성된 학자군이 공동체주의자들(Communitarianism)이다. 말하자면, 명시적 윤리의 다름에서 오는 갈등은 윤리에 대한 근대 자유주의 사상의 이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주, “현대 도덕교육의 쟁점,” 『국민윤리연구』, 52호 (2003): 261~3.

이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에서 통용되는 명시적 윤리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 차이는 없다. 예를 들면,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명시적 윤리로 통용된다. 아무리 사회가 악해도 도적질하라고 명시적 윤리를 가르치는 곳은 없다. 다만, 어디까지를 도적질이라고 규정하느냐 하는 데는 교회와 사회가 다를 수 있다.

교회의 실질적 윤리는 교회 안에서의 공식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보다는 비공식적 모임에서 교인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들 즉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실질적 윤리는 명시적 윤리보다 교회 안에서 쉽게 전파되고 암암리에 교인들의 생활규범으로 자리잡게 된다. 예를 들면, 설교 때 신자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명시적 윤리를 배운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나 예배 후 영업을 하는 교인들끼리 모여서 ‘영수증 없는 거래’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야기—삶의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 이야기들은 그때 함께 한 교인들에게 암암리에 실질적 윤리를 교육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명시적 윤리와 교인들 사이에 자리잡아 가는 실질적 윤리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교회 안에서 명시적 윤리와 실질적 윤리 사이의 괴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교회는 윤리적으로 건강한 교회이다. 따라서 자기 교회의 윤리적 건강성을 진단하기 원하는 교인은 설교 때나 성경공부 시간에 얼마나 훌륭한 윤리가 명시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가르쳐지느냐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때 선포되는 명시적 윤리와 교인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주고받는 ‘삶의 이야기’ 속에 흐르는 실질적 윤리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살펴보고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삶의 이야기'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교회가 공식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치는 내용(윤리적 교훈)보다 교인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주고받는 '삶의 이야기'가 교인들 또는 교회의 윤리적 정서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윤리'에 대한 어원적 정의와 Narrative 윤리학의 이론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명시적 윤리와 실질적 윤리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교회의 윤리적 건강성은 떨어진다는 점도 위에서 확인하였다. 아울러 교회의 윤리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윤리를 강화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실질적 윤리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교인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주고받는 '삶의 이야기'가 건강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여기서 '삶의 이야기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은 삶의 이야기를 복음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교인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더 큰 이야기'(하나님의 이야기)와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삶의 이야기를 '종교 용어'로 대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삶의 이야기의 방향성과 지향성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야기의 방향성 및 지향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삶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더 큰 이야기'의 방향성 및 지향성을 갖지 않은 채 종교적 언어로만 전환되어 버린다면, 종교적 이중성이나 허위의식이 삶의 이야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점을 염두에 두면서, 삶의 이야기를 복음화하기 위해 평상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것 세 가지를 사족으로 덧붙이면서 이 논문을 마치겠다. 이 세 가지 제안은, 지역 교회가 교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복음적으로 형성하는 모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첫째, 교회의 구조와 운영방식이 성경의 ‘더 큰 이야기’의 방향성과 지향성에 부합해야 한다. 교회의 구조와 운영방식이 교회의 윤리적 풍토형성에 압암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형성된 풍토가 교인들끼리 주고받는 ‘삶의 이야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구조와 운영방식이 강압적이고 성공 지향적으로 틀지어진 교회에서 신앙을 훈련받는 교인들이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섬김과 낮아짐 지향적으로 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설교에서 예화를 사용할 때 입신출세한 사람들의 예화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앙적 미덕을 갖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예화를 듣고 나서, 교인들은 그 사람의 신앙적 미덕보다는 그 사람의 성공을 더 크게 가슴에 담기 때문이다. 신앙적 미덕에 해당하는 낮아짐과 섬김보다는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획득한 성공을 더 중요시여기는 마음을 키우게 된다. 그리하여 이런 예화가 교회 안에 회자되면, 교인들이 나누는 ‘삶의 이야기’는 세상의 성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형성되어 ‘복음적 이야기’에서는 멀어지게 된다.

셋째, 교인들은 종교적 위선이나 허위의식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를 복음화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예배 시간에는 생각과 뜻이 복음 지향적이 되었다가도, 교인들끼리 일상적 대화를 나눌 때는 생각과 뜻이 세상 지향적이 되는데 우리는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토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병권 교수는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침례신학대학원(M.Div.)과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으로 Th.M을 받은 후, 미국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기독교 윤리학으로 Ph.D를 받았다. 1997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살림침례교회에서 공동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2002년 8월부터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 전임강사로 있다.